

UFG 한미연합훈련 중단 ... 미군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비용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북·미정상회담을 마친 뒤 한미연합 훈련을 중단할 수 있다는 점을 내비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엄청난 돈을 군사훈련에 쓰고 있다. 한국도 부담하지만 일부만”이라며 “괘에서 한국까지 와서 폭격 연습하고 가는 데 큰 비용이 드는데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로부터 1주일, 한국 국방부는 19일 발표한 성명에서 “8월 실시하려고 했던 방어적 성격의 ‘을지프리덤가디언(UFG) 군사훈련’의 모든 계획을 유예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미국도 같은 날 국방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8월 예정된 ‘워게임’에 대한 모든 계획을 유예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키리졸브(KR) 연습, 독수리(FE) 훈련 등 남은 한미연합 훈련까지 취소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미 군 당국은 그러나 “여전히 추가 조치들에 대해 조율하고 있다.”며 8월 이후의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발언이 나온 후 놓고 워싱턴 조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린지 그레이엄(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은 한미연합훈련 중단 발표 전날 CNN방송에 출연해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북한에 숨통을 틔워준다는 측면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키로 한 것 자체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비용 문제를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터무니없다.”고 쓴소리를 했다.

그는 “한국에 전진 배치된 병력을 보유하는 것은 미국 납세자들에게 짐을 지우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안정성을 가져다 주는 것인 동시에 중국에게 지역 전체를 다 장악할 수 없다는 걸 경고하는 의미도 될 수 있다.”라며 “그래서 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논리는 거부한다.”고 말했다.

윌리엄 코언 전 국방부 장관도 CNBC 방송 인터뷰



▲미 공군은 ‘죽음의 백조라 불리는 B-1B(랜서) 초음속 전략폭격기의 시간당 운용비용(OCPFH: Operational Cost Per Flying Hour)이 시간당 9만5천758달러가 소요되는 것으로 계산했다. B-1B(랜서) 초음속 전략폭격기들이 연습 작전을 위해 괌 미공군기지에 모여 있다.

에서 한미연합훈련의 비용이 크기는 하지만 군사분쟁에 대한 준비태세가 부실하거나, 전쟁에서 패배했을 때의 비용은 더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게 얼마나 비싼지 강조하다가 보면 전략적 역지가 무엇인지, 그것이 어떻게 한국의 이익뿐만 아니라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는지 요점을 놓치게 된다.”고 강조했다.

토머스 스포르 헤리티지재단 국방연구센터 소장은 워싱턴포스트(WP)에 “(대통령이 언급한 것이) 단지 대규모 연합 훈련을 의미하는 뜻이었다면 몇 달간 없이 지낼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장기간 연합군사훈련을 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충격파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재임한 캐슬린 히스 전 국무부 부차관은 뉴욕타임스에 “병력의 준비태세를 신경 쓰지 않는다면 비용은 줄일 수 있다.”면서도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이) 준비태세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행정부는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미 당국은 결국 8월로 예정된 UFG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그렇다면 과연 미군이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

개하는 데 드는 비용은 얼마나 될까?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CBS 방송은 지난 13일, 미 공군이 계산한 것이라면서 B-1B(랜서) 전략폭격기, B-2A 스퍼릿 스텔스 폭격기, B-52H 장거리 폭격기의 시간당 운용비용(OCPFH:Operational Cost Per Flying Hour)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시간당 B-1B는 9만5천758달러, B-2A는 12만2천311달러, B-52H는 4만8천880달러가 각각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미군은 주로 괌 기지에 주둔한 이들 전략자산을 그동안 한미연합훈련 때나 안보 상황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한반도에 전개해왔다.

미 공군 관계자는 시간당 운용비용 계산은 이들 전략자산의 운용 및 유지비용을 연간 총 비행시간으로 나눠 계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운용비용에는 비행에 직접 들어가는 비용과 인건비, 정비, 직간접 지원, 무기체계의 하드웨어 개선에 들어가는 비용을 제외한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 비용 등이 포함된다.

CBS는 이들 3기의 전략자산이 각각 ‘13시간의 왕복 비행’을 할 경우 총비용은 347만337달러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전했다. ‘13시간’은 괌기지에서 한반도까지의 왕복 비행과 한반도 주변에서의 작전시간까지 포함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 같은 비용 추계는 총비용의 일부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몇 대의 전폭기가 동원되느냐, 또 항공모함을 비롯한 다른 전략자산 전개 여부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전략자산의 전개와 별도로 UFG와 같은 한미군사훈련에는 별도의 비용이 소요된다.

CBS는 347만337달러의 소요 비용에 대해 미 국방부가 2019년 국방예산으로 제안한 6천811억 달러에 비하면 아주 작은 부분이라고 전했다.



미주 최대 보험사 AAA 에서 미 전지역 한국인 담당 Franklin Joo

• 자동차 • 집 • 사업체 • 보트 보험

보험에 대해 새로 알아 보시거나
비교해 보실 분은 연락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게
도와 드리겠습니다.



직통전화 714-593-2291 joo.franklin@aaa-calif.com